

고창에서 즐기는 우리동네 영화축제!

28일 고창해리초 찾아 전교생 대상 영상제작 체험
29일 원광참살이요양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상영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주)영화사친구가 주관하는 우리 동네 영화 축제 '2019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찾아가는 영화관'과 '영상나눔버스' 사업을 연계하는 '2019 우리 동네 영화관 통합축제'를 전라북도 고창에서 진행하며 관객들에게 두 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2019 우리 동네 영화관 통합축제'는 올해 공모 지원한 작은 영화관 중 기획전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실적이 좋았던 2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의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고창

이 태안과 함께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먼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영화관'은 작은영화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영화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동 영화관으로 영화상영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 고전영화를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우수 작품을 상영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에선 29일 오후 2시 '원광 참살이요양원'에서 정소영 감독, 신영균, 문희 주연의

1968년 작 '미워도 다시 한번'을 상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이 진행된다.

앞서 28일 오후 1시에는 영상나눔버스가 '해리초등학교'를 찾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상제작체험과 라디오 DJ체험을 제공한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영상나눔버스'는 시네놀이와 영화 관련 기자재를 체험할 수 있는 영상문화체험버스다.

'2019 우리 동네 영화관 통합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문의는 고창 동리시네마(063-564-1340)로 하면 된다.

한편, '2019 작은영화관 기획전-고창'은 동리시네마에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22편, 82회의 영화 상영과 5회에 걸친 영화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활성화 위한 워크숍 개최

전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와 관계자 200여 명이 오는 26일과 27일, 1박 2일 동안 완주군에 위치한 상관 리조트에서 '전북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도 무형문화재연합회가 주관하고 전북도가 후원하여 개최되며, 그동안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연합회 이끌어 왔던 임실 필봉농악 양진성 회장의 이임에 따른 차기 회장 선출을 시작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지영 교수의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송영국 위원의 전라북도 무형유산 발전 방안을 위한 전승교육 지도법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도 무형문화재연합회는 도내 기·예능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하나 되어 무형문

화재 활성화를 통해 애환의 고장 전북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안정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출범했다. 도와 무형문화재연합회는 그동안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 ▲무형문화재 국내 행사 참가 지원 ▲무형문화재 홍보활동 지원 사업 등 각종 공연과 전시활동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도내 무형문화재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무형문화재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과 정신을 계승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자산이자 보물이고, 전라북도를 가장 전라북도답게 만드는 주역이다"라면서, "전북도는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행복한 송년 파티에 유쾌한 오페레타 '박쥐'

김제문화예술회관서 내달 6일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2월 6일 오후 7시 오페라의 정통성과 뮤지컬의 대중성을 겸비한 오페레타 '박쥐'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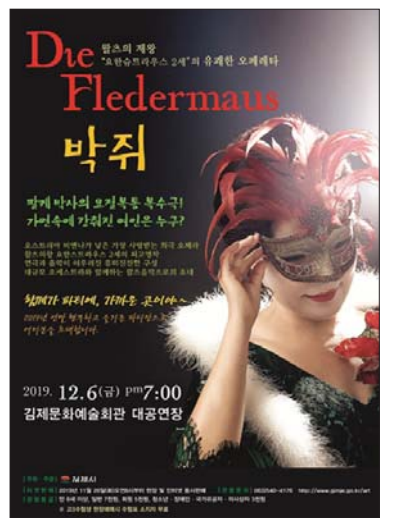
작은 오페레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페레타'는 오페라의 무거움에서 뮤지컬의 대중성으로 가는 과도기적 장르로서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이는 오페라의 무거움을 견어내고 작품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대중성을 겸비한 장르로서 요한스트라우스의 박쥐는 오페레타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올려지는 작품임과 동시에 왈츠의 왕 요한스트라우스 음악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12월 크리스마스 저녁 파티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아름다운 왈츠의 선율과 무용, 노래가 어우러지는 작품이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오페라 속에서 행복한 송년 파티를 즐기며 작품이 선사하는 의미를 배가시킬 수 있다.

관람권 예매는 11월 19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 순 판매하며 03수험생 현장예매 시 수험료 소지자에 한해 무료로 예매 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 순 판매하며 03수험생 현장예매 시 수험료 소지자에 한해 무료로 예매 할 수 있다.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생명력 있는 교육 실현

부안초 관악부, 35년 연속 전국대회 본상 수상... 1981년 창단 이후 해마다 전국대회 휩쓸어

부안초등학교 관악부(지휘 이철경)는 제44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제17회 춘천 전국관악경연대회 우수상, 제2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금상 수상 등 35년 연속 전국대회 본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부가 제44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제17회 춘천 전국관악경연대회 우수상 등 35년 연속 전국대회 본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지난 9월과 10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예술교육페스티벌과 세계소리문화축제에 참여했으며, 오는 23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부안초 졸업생 및 지역주민 500여 명과 함께 하는 '관악의 밤' 공연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영우(6학년) 학생은 "연습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고,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것도 뿌듯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지현(6학년) 학생은 "호른이 부드러운 중저음을 내는 악기여서 매력에 많이 느꼈고 연주를 하면서 위로와 기쁨을 많이 얻었다. 무엇보다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이 즐겁다"고 말했다.

13년째 부안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철경 지휘자는 부안초 관악부 출신이다. 관악부 7기 출신으로 부안초등학교에서 클라리넷을 배운 뒤 독일에서 음악을 전공한 후 고향에 돌아와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철경 지휘자는 "처음에는 박자도 모르고 오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악보도 읽을 줄 알고 사회에 나가서도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초등학교는 2015년부터 현재까

지 혁신학교로 지정돼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생명력 있는 교육을 실현해왔다.

특히 관악부원들에게 악기와 의상 등 관련 부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길남 교장은 "관악부 활동은 예술교육과 인성교육이 모두 가능한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이다. 해마다 최선을 다해 연습하는 학생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중학교에 관악부가 없어 악기 연주를 연계해서 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부안초등학교는 1912년 5월 개교한 이래 106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2018년 배출한 졸업생은 22,907명에 이른다.

학교 본관 2층에 역사실을 조성하는 중이며 트로피, 표창장, 졸업사진, 학교 앨범, 학교 소식지 등 지나는 발자취를 모아 전시할 계획이다.

/장은성기자

소리문화의전당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문화예술 교류 협약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프로그램 교류를 통한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문화예술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협력, 문화예술 관련 교과목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 교육생 공연 관람 시 혜택 제공, 공연 홍보물 원내 게시 및 공연정보 수시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당 서현석 대표는 "전당 시설이 인재개발원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 박재민 원장은 "1년에 교육받는 수강생이 8000여 명"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육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